

조경 50주년을 맞는 올해는 많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그들이 작은 결실을 맺었다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후의 시간은 우리를 돌아보고 보다 건실한 학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1차 소견에서 밝혔듯이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선순환 구조 만들기

- 현황과 문제점

- 각종 회비 수입의 3배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구조
-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적자구조를 기부금 등과 특별회계로 충당
- 기부금법의 강화로 지출의 융통성 제한
- 회장을 포함한 운영진에 집중·확대되는 예산확보의 부담감
- 예산부족시 사업중단 등의 현상 발생
-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악화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개선방안

- 예산사용의 효율성 높이기 : 여름조경학교 운영 개선, 환경조경대전의 부문확대와 자원화
- 정부 및 단체의 지원 확보
 - 조경지원센터 운영비 확보의 전담화
 - 국가(7개부 2청 1처) R&D 사업 수주를 위한 전담조직 구축
 - 대학(57개 대학) 단체회원 부활
 - 조경단체(전문공사업 등)의 후원조직화
- 자체 수익성 사업 도입 : 자격 보수교육과정 운영
 - 회원(교수)을 인력풀로 활용하여 업계의 요구도를 충족
 - LA-FENT에서 시행하고 있는 on-line 교육을 공동으로 운영
 - 국가사업의 적극 참여(예, 도시숲 조성 등)

▶ 인구감소 대응

- 현황과 문제점

- 인구감소, 학생감소, 낮은 취업요구도, 취업률 하락, 학과경쟁력 약화의 악순환 구조
- 업체의 요구는 있으나 학생들의 진출요구도(공급)는 급락
- 폐과 및 폐교의 발생
- 학회와 학과(대학)는 독립적 생존구조 유지
- 취업에 초점을 맞추는 대학교육만으로는 인구의 자연감소에 대응력을 발휘할 수 없음.

- 개선방안

- 학회, 학과(대학), 산업체의 전통적 인식구조 전환
 - '고교 → 대학 → 산업체'에서 '진학자원 ← 대학 ← 산업체' 구조로의 인식 전환
- 학회와 학과(대학)의 동반자구조 만들기
 - 전공선택률 확대를 목표로 공동 대응
 - 업계로의 취업을 중심으로 대학으로의 진학을 중심으로 정책전환(진학자원의 발굴)

- 조경학과로의 진학방안 찾기(조경학의 경쟁력 강화)
- 학계와 산업계의 상생구조 만들기
 - 단발성의 프로젝트 협조관계에서 조경계의 선순환 형태로 재구조화
 - 산업계와의 심도있는 토론 필요
- 여름조경학교의 전향적 재검
 - 산업계의 요구도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전환
 - 예비자원(초·중·고)에 집중하는 프로그램 도입
- 학회차원의 학과 홍보 시스템 활용 : 홈페이지, LA PD, 메타버스 등의 활용성 높이기

▶ 사업의 실효성 높이기

- 현황과 문제점

- 예산투입 대비 결과물 활용의 불확실성
- 실효성 낮은 일상적 행사의 지속에 따른 피로감 증가
- 여름조경학교에 대한 논란
 - 반복되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
 - 대학의 학과수업과 내용 중복, 인턴 프로그램과 시기 중복
 - 취업후의 낮은 업무 연관성
- 환경조경대전의 가치 평가
 - 불확실한 후원자의 만족도와 낮은 예우
 - 활용성이 없는 대전결과물
 - 후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 개선방안

- 여름조경학교㉔ : 기존 사업의 방식 전환
 - 대학의 인턴프로그램과 공동 운영으로 예산절감, 업무연관성 높이기
 - 대학에서 할 수 없는 인턴 참가자에 대한 관리를 학회에서 담당
 - 업체의 담당자 지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
- 여름(미리 만나는)조경학교㉕ : 새로운 유형의 도입
 - 초·중·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조경학교(직업탐구)
 - 산림청과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명상숲(옛 학교숲)' 조성사업의 총괄
 - 산업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과 연계
- 환경조경대전
 - 후원자의 요구성향 재분석으로 정기적 후원 행사 이상의 가치 창출
 - 시설분야의 확대(자재분야 후원)와 성과물의 자원화(의장등록, 실용신안 등)

▶ 함께하는 학회

- 현황과 문제점

-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인식
- 사회적 불균형 구조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점차 심화
-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화 인식으로 무관심 확대

- 개선방안

- 전국의 학과(대학)와 동반자구조 만들기 : 전국 학과장 회의(on-line) 부활
- 57개 대학(유사학과 포함) 회원제도 부활
- 지회장(영남, 호남 등)을 운영진에 포함 : 수석부회장 조직
- 사업의 공동 발굴과 참여 : 국가 R&D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과 연구참여

▶ 회원혜택

- 현황

- 학회지 투고, 홈페이지 접속, 행사참가비(일부) 감면
- 회비 수입의 3배~5배가 소요되는 사업구조로 인하여 별도의 혜택은 불가능

- 개선방안

- 개인회원 : 논문 심사료 면제, 게재료 감면
- 학회임원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 면제(연1회)
- 단체회원 : 주간·월간지 제공

학회 운영진으로 참여하는 동안 보고 느낀 점을 생각한 결과이지만 몇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수 없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회원중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방안 혹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